

<발기취지문>

이제는, 건너가자!

좋은 정치 · 과학 정치 · 생활 정치가 만들 새로운 시대로

■ 어떤 세상을 꿈꾸십니까?

우리가 꿈꾸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청춘을 바쳐 산업화를 이루고, 목숨을 던져 민주화를 쟁취하고
문화와 스포츠로 세계를 제패한 우리 모두가 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풍요롭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강하면서 품격있는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일구며 우리가 꿈꿨던 나라는

보수의 대한민국도, 진보의 대한민국도 아니고

강남의 대한민국도, 강북의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제의 혁신이 오늘은 적폐가 되고

오늘의 정의가 내일은 범죄가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진영에 따라 사실의 진위가 바뀌고, 정책의 찬반이 바뀌는 나라가 아닙니다.

갈라진 세상, 등 돌린 국민들이 매일매일 거리로 나와
좌파척결과 우파척결을 외치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 이제 건너가야 합니다.

국민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더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절규합니다.

그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야 합니다.

‘이제는 건너가자!’

한국을 대표하는 한 철학가가 우리 시대에 던지는 화두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국민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

과거를 뛰어넘고 오늘을 초월해 새로운 미래로 넘어가자!

선진국을 뒤쫓는 ‘추격국가’로는 최고의 단계에 이르렀으니
이제 세계를 이끄는 ‘선도국가’로 건너가자!
더 나은 세상으로, 더 높은 미래로 이제는 건너가자!
그 절절하고 담대한 비전에서, 한국의 희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 건너가지 못하면 추락하고 맙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건너가야 할 때를 놓친 나라는 예외 없이 추락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로 이끌 정치가 그 본질을 잃으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한국 정치는 지금 본질을 잃고, 염치를 잃고 신뢰를 잃었습니다.

‘말의 질서’와 세상의 상식도 버린 채

“이게 나라냐?”, “이건 나라냐?” 비난을 서로 주고받으며

20여 년의 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이끄는 정치는 그저 권력 게임이자 이권 다툼입니다.

그들이 주도하는 ‘정권 교체’는 ‘기득권 교체’일 뿐입니다.

진영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 낡은 정치, 특권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정치지망생들을 데려다 진영의 ‘행동대장’으로,

이념의 ‘총알받이’로 세우는 그들에게 어찌 미래 세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 10만 명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국민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이 도달할 높이가 여기가 끝이 아니고,

그 이상의 미래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는 국민께 요청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한다고 여기는 국민께,

과거에 갇힌 절망의 정치를 이제 끝내야 한다는 국민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진영의 울타리를 허물고 <한국의희망>과 함께해주십시오.

새로운 꿈을 꾸는 우리가 뭉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기적의 시작은 “과연 가능할까”하는 불신을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하나가 모이면 이내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치를 과(過)대표하고 언론을 도배했던 양당 강성 지지층 대
신
시대의 급소를 잡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미래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10만 명만 모이면, 단숨에 양당을 위협하는 유력 정당이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50만 100만을 넘어 최대 정당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
다.
그러면 정치가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을 바꿀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설 순간입니다.

■ 새로운 정치로 건너가겠습니다.

<한국의희망>은 기존 정치와 다른 세 가지 정치를 추구합니다.

진영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넓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그들만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 삶을 바꾸는 실용 정치, ‘생활 정치’로 바꾸겠
습니다.

무엇보다 당리당락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정당과 손 맞잡고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한국의희망>은 첨단 기술로 구태를 차단합니다.

국내외 정치인들이 블록체인 정당을 추진했지만, 기술적 한계로 실패했습니
다.

한국의희망은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운영됩니다.

첨단의 기술이 가진 투명성, 불변성, 안정성으로
돈봉투 사태와 같은 부패를 원천차단하고, 공천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당대표의 독선, 대의원의 과대표 등 구태를 시도조차 못 하게 하겠습니다.

<한국의희망>은 정당이자 학교이고 학교이자 정당입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정치를 시작할 때도, 하는 중에도 제대로 교육받지 않습
니다.

막말과 무지성이 넘치는 정치를 품격과 합리로 바꾸려면 교육이 필수입니다.

한국의희망은 북유럽식 정치학교와 자체 개발한 웨도우캐비넷 교육시스템을 도입,

국가비전과 정책, 토론과 소통역량, 인성과 도덕성을 교육하겠습니다.

지도자를 지도자답게 바꾸고, 더 좋은 청년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한국의희망>은 모든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능력도 없이 특권만 누리고, 정작 국민의 삶은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희망은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적 지위, 혜택, 지원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를 동력으로, 사회 기득권이 누리는 모든 특권도 박탈하겠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특권 없는 나라, 그 혁신을 시작하겠습니다.

■ 우리가 바로 ‘한국의 희망’입니다.

30여 년 전 한국의 반도체가 일본과 미국을 넘어선다고 했을 때,
모두가 헛된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꿈을 꾸고 겁 없이 도전한 덕에

불과 10년여 만에 일본을 따라잡고 미국을 넘어 세계 1위를 제패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불가능을 꿈꾸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먼 훗날 한국 정치가 바뀌고 세상이 나아져 국민이 더 행복해진다면,

역사는 그 시작을 우리의 도전이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완전히 새로운 미래정당의 탄생과

바로 여기,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의 진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벽찬 가슴으로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한국의 희망이다!”

2023년 6월 26일

<한국의희망> 중앙당창당준비위원장 양향자